

달러 防衛措置와 圓貨平價切上이 韓國輸出에 미치는 영향

全 英 淳

<韓國貿易協會調查部長>

1. 달러 防衛措置의 背景

지난 8월 16일 닉슨 美大統領은 달러와 金의 交換停止를 비롯하여 일련의 新經濟政策을 발표하였다. 이 新경제 정책이 世界經濟와 美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IMF 체제라고 불리우는 2차대전 후의 國際通貨體制에 중지부를 적었다는 사실이다.

1944年 7月 22日 美國 뉴·햄프셔州 부레튼·우드에서 國際通貨基金(IMF)協定과 國際復興開發銀行(IBRD=통칭 世界銀行)協定이 연합국 44개국에 의하여 조인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우기 IMF 體制를 탄생시키고 戰後 世界 경제 지배의 手段으로 이용해오던 미국 자신이 IMF 體制를 허물어뜨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戰後가 아니다”는 말은 오늘날 그 新鮮함을 잃어버렸지만 世界經濟 특히 國際通貨金融體制에 있어서는 이제야말로 戰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의미에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같은 정세하에서 미국 정책은 무엇을 지향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美國은 世界 最大, 最強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英國, 프랑스는 戰勝國이라고 하지만

전쟁 수행에서 많은 國富를 잃었을 뿐 아니라 殖民地 體制의 붕괴라는 타격을 크게 받아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극히 弱體化되었던 것이다. 독일·이태리·日本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을 뿐 아니라 獨逸과 日本은 戰後 오랫동안 聯合軍의 군사 점령하에 있었다. 資本主義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美國의 優位는 문자 그대로 압도적이었다. 1948년 세계의 資本主義諸國의 工業生産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율은 53.9%에 달했으며 金保有量도 資本主義世界的 70.7% (23億 9,900萬 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은 그와 같은 정치, 경제의 압도적 優位의 기초 위에서 戰後 世界支配體制를 수립하였다. 이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美國獨占資本의 행태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이 있었음을 잊을 수 없다.

第2次大戰後 미국은 종래의 태도를 일변하여 國際政治와 國際經濟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리더쉽을 취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東歐羅巴나 아시아에 社會主義를 이행하는 나라들이 생겨 쓰러진 데 더불어 社會主義 세계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最大最強의 자본주의 국가인 美國資本의 위기 의식을 높였다. 둘째는, 獨, 伊, 日 등은 말할 것도 없이 英國, 프랑스도 弱化되었기 때문에 資本主義世界的 리더의 지위에는 미국밖에는 없었다. 셋째, 전술한 바와 같은 政治, 軍事, 經濟에 있어서의 압도적 우위가 있으면 자본주의 세계의 리더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넷째

제 2차 세계 대전 중, 이른바 민주주의의 兵器廠으로서 聯合諸國에 軍需物資로부터 식량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물자를 공급해 왔던 美國經濟를 또다시 戰前처럼 주로 국내 시장만의 經濟로 압축하기는 어려웠다.

美國은 이른바 팩스·아메리카나를 확고 부동하게 하기 위하여 제 2차 세계 대전 중으로부터 戰爭直後에 걸쳐 국제 연합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機構를 만들었는데 IMF도 그 하나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벌써 미국의 經濟力은 세계에서 으뜸이었지만 國際通貨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러가 IMF 體制 가운데서 基軸通貨의 지위를 부여 받았고 「各加盟國通貨의 平價는 公同 척도로서의 金 또는 1944年 7月 1日 현재 시행의 量目 및 純分을 지니는 合衆國 달러를 가지고 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IMF 協定 第 4條 第 1項)고 되어 있다. 미국이 세계의 金 약 70%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달러는 바로 金으로 보였던 것이다.

사실 주요 資本主義 諸國 通貨가운데 金은 물론이요 달러와의 自由 交換이 인정되는 通貨는 없었다. 영국을 보아도 1945년 12월 美英金融協定에 의하여 37億 500萬 달러의 借款을 얻고서 同協定에 따라 1947년 7월 15일부터 交換性を 회복하였지만 겨우 5주간에 10億 달러를 상실하고 同 8월 20일 달러 交換停止를 당하였다. 결국 이같은 金 및 外貨準備 減少의 타격 이후 49년 9월 18일 영국은 파운드를 4.03 달러에서 2.40 달러로 30.5% 절하할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아이스랜드의 60.2%에서 캐나다의 9.1%에 이르기까지 많은 통화가 절하되었다. 달러만이 제 1급의 通貨이며 다른 나라 通貨는 2級, 3級の 通貨임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형식적으로는 IMF, 실제로는 49년의 파운드 平價 切下를 통하여 국제 통화 신용면에서의 달러 支配는 확립되었다.

第 2次 世界大戰後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의 리더로서 취한 정책은 넓은 의미에서의 「冷戰」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트루만에서 닉슨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냉전 상태를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社會主義 世界體制에 대항하여 소련과 중국의 주변을 軍事基地網으로 포위함으로써 共產主義의

浸透를 방지, 封鎖하였다.

美國은 방대한 軍事支出과 또한 거액의 對外援助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액의 軍事支出이 景氣維持에 도움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對外援助가 미국 상품의 해외 시장을 보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巨額의 軍事支出과 대외 원조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 효과는 한정되어 있었다. 오히려 심각한 인플레이 경향을 美國經濟에 體質化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國際收支面에서 군사 지출은 對外軍事支出으로서 또 대외 원조는 그대로 모두 資本收支의 마이너스 항목이 된다. 전세계에 방대한 軍事基地網을 펴고 거대한 陸海空軍兵力을 파견하는 費用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또 194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합계 약 1,500億 달러의 對外援助(이 중 經濟援助 1,090億 달러, 軍事援助 410億 달러)를 한 것을 생각하면 대외 원조가 미국 경제로서도 큰 부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와 같은 부담, 즉 冷戰이 필요로 하는 費用 부담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 2차 대전 직후의 미국 경제가 資本主義 세계 경제 가운데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國際收支構造上으로는 거액의 貿易黑字를 주체로 하는 經常收支黑字가 資本收支의 赤字를 메울 수 있었다든가 또는 國際收支의 總合收支가 적자가 되더라도 소액의 적자로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 國際收支는 1940년대는 소액의 黑字였으며 50년대에 들어 赤字로 전락하였지만 그 폭은 미미하였다.

國際收支 差는 연평균 5億 3,300萬 달러의 黑字였으나 51~55년의 것은 연평균 12億 3,600萬 달러의 赤字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 國際收支構造로 보아도 만약 미국 경제의 압도적 우위가 상실된다면 미국은 언제까지나 冷戰政策의 비용 부담을 견딜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 직후의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음은 또한 자명한 일이었다.

사실 美國經濟의 압도적 우위가 消滅될 시기가 다가왔다. 즉 1958년이 그것이다. 미국측으

로 말하면 1957~58년은 戰後에 있어서 가장 격렬한 景氣後退의 해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西歐諸國이나 日本을 훨씬 하회하였다. 또 50년대에 들어서 약간의 적자로 轉化한 美國國際收支는 그 해에 33億 6,500萬 달러의 赤字를 내었을 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國際收支 危機의 시기에 들어섰다.

이에 대하여 西歐諸國과 日本은 50년대를 통하여 고도 성장을 계속하여 특히 獨逸, 프랑스, 英國은 1958年末에는 증가된 金, 달러 준비를 배경으로 通貨交換性을 회복하였다. 그것은 이들 諸國이 戰爭直後の 權利喪失 상태를 이탈하고 美國과 대등한 資力을 가진 경쟁자로서 세계 시장에 복귀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의 소멸은 다음과 같은 수자에도 나타나 있었다. 資本主義 세계의 공업 생산에서 점하는 미국의 비율은 48년의 53.9%에서 58년에는 46.1%로 저하하였으며 世界輸出에서 점하는 비율도 47년의 32.5%로부터 58년에는 18.8%로 저하하였다. 또 資本主義 世界の 金外貨準備 合計에서 점하는 미국의 비율은 1948년의 53.7%에서 58년에는 39.0%로 떨어졌다.

물론 1958년 당시에 있어서도 미국은 世界最大 最強의 자본주의 국가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후 13년을 지난 후 전쟁 종료 당시 미국이 지니고 있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지위를 잃은 이상 美國經濟로서도 冷戰政策의 비용을 언젠까지나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미국 자본도 미국 정부도 인식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越南戰爭 수행으로 인한 전비 부담으로 곤란에 빠졌던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의 冷戰 가운데서 최초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1950년에서 53년까지의 韓國戰爭이었다. 한국 전쟁은 日本經濟를 소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西歐諸國의 경제도 부흥 단계에서 高度成長段階로 발전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西歐諸國이나 日本이 美國의 대등한 경쟁자로서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준 것이 한국 전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越南戰爭은 冷戰戰爭 政策을 續行할 수 없는 사태로 미국 경제를 몰아 넣고 말았다.

미국 경제는 1961년 이래 景氣上昇期에 들어 8개년간의 類例 없는 장기적 번영을 경험하였다. 1958년 이래 계속된 國際收支 危機를 무시한 連續적으로 내려온 景氣刺戟政策은 확실히 美國經濟의 장기적 번영을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지만 越南戰爭의 확대는 국내 경기를 과열화하여 인플레이션을 격화시키게 되었다. 越南戰爭은 對外軍事支出의 증가, 國內 인플레이션 昂進에 따르는 수출 감퇴와 수입 증가를 통하여 美國 國際收支 위기를 深化시켰던 것이다.

달러를 基軸으로 했던 IMF 體制 아래에서는 미국은 國際收支赤字 結제를 달러로 할 수 있다. 그 限에서는 國際收支危機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는 되지 못했다. 달러를 받은 나라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달러의 減價가 현저해짐에 따라 諸外國이 그 보유 달러를 金과 교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金選好」 경향은 60년대에 들어 현저해지고 1960년만도 17億 1,800萬 달러의 金이 西歐諸國으로 유출되었다. 제 아무리 「金の 廢貨」를 말하는 미국도 사태를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1965년 2월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金本位宣言을 하여 미국에서 의식적으로 대량의 金을引出함에 따라 사태는 한층 심각하여졌다.

1968년 3월 金保有高의 減少를 그대로 둘 수 없게 된 미국은 金품에의 金供給을 정지함과 아울러(이는 金の 二重價格制에의 移行을 의미한다) 그 보유 달러를 金과 교환하지 않는다는 「紳士協定」을 諸外國에서 받았다. 1온스당 35달러의 레이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金價 10% 個國은 런던 金市場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런던 金市場의 가격은 1온스당 35弗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엄격히 말해서 미국이 金과 달러와의 교환에 제한을 가하고 金の 二重價格制를 채용하게 될 때 IMF 체제는 허물어졌던 것이다. 越南戰爭의 終熄이라는 찬스를 이용하여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國際收支危機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첫째로 危機進行을 과소 평가하였고 다음에는 인플레이션과 國際收支危機의 자주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닉슨 政權은 발족 당

초부터 失業增加 없이 인플레이를 해결하는 것을 공약의 첫째로 꼽고 있었지만, 失業率은 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는 격화할 뿐이었다.

닉슨 政權은 國際收支 赤字國側에서의 평가절상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激化된 인플레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엄격한 디플레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인 즉, 이는 곧 失業率의 最上昇을 가져오고 심각한 社會不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모든 정책의 중점을 來年의 大統領選舉에 맞추고 있는 닉슨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올해 大統領經濟報告는 「미국의 國際收支는 국내 경제의 상황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경영 운영 및 政策 여하에 달려 있다. 중요 貿易相對國이 平價를 고정하고 SDR 割當 이상의 흑자를 내게 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제 수지의 赤字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 아래 닉슨 대통령은 이번에 달러와 金과의 交換停止, 10%의 輸入課徵金이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미국이 基軸通貨國으로서의 지위를 放棄함과 아울러 輸入課徵金을 내세워 日本이나 西歐諸國에 平價切上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제는 IMF와 GATT에서 貿易과 資本의 자유화를 주장하던 미국은 아닌 것이다.

2. 달러 防衛措置의 內容과 韓國輸出에 미치는 影響

지난 8월 16일 닉슨 미국 대통령은 TV 회견을 통하여 달러 價値의 安定 국제 수지의 개선 국내의 경기 회복과 物價安定을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對內 및 對外經濟政策面에 일대 전환을 가져 왔다.

이제 同措置의 內容을 살펴 보면

- ① 달러의 잠정적인 金兌換 정지
- ② 輸入品(輸入 quota 품목과 無稅品目은 제외)에 대해 10% 輸入附加稅의 잠정적 부과
- ③ 賃金 및 물가의 90 일간 동결과 장기적인 賃金·물가 안정을 위한 生計費委員會 설치
- ④ 新設備 및 機械投資에 投資稅 10% 공제
- ⑤ 현행 7%의 自動車消費稅 폐지
- ⑥ 73년 실시 예정인 個人所得稅의 減稅를 1

년 앞당겨 실시

⑦ 47억 달러의 聯邦政府支出 삭감

⑧ 대외 경제 원조의 10% 삭감 등이다.

미국은 二次世界 大戰後 계속되어 온 막대한 對外援助, 海外投資 및 貿易收支의 악화로 60년대 전반부터 赤字가 누적되어 왔으며 70년대에 들어 와서는 그 逆調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1970년에는 98억 달러, 그리고 금년도 上半期에는 113억 달러의 國際收支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흑자를 유지해 오던 貿易收支마저 3.7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國際收支赤字를 더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收支 逆調의 심화에 의한 달러의 유출 증대와 이에 따른 金準備의 감소(작년말의 111億 달러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05億 달러로 감소) 때문에 달러의 信認度가 추락되어 달러 위기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최근 미국의 對外短期債務가 500億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100億 달러 정도의 金準備로서는 외국의 일시적인 金兌換 요구에 응할 수 없는 國際金融上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달러 信認度의 저하는 금 값을 1온스당 44.3 달러~45.5 달러로 인상시켰으며 따라서 歐洲의 換投機業者들은 美 달러로 金과 強勢通貨를 매입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이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투기적 短期資金이 유출되었다.

그러나 달러 방위 조치를 취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프랑스가 IMF의 채무를 변제하는 명분으로 1億 9千萬 달러의 金兌換을 요구한 것과 이에 이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金兌換을 요구할 의사를 밝힌데 있다.

대내적인 면에서 미국 경제는 심화된 國際收支 逆調과 더불어 1965년 이후 월남 전쟁에 따른 國防費 支出增大로 財政赤字 幅이 확대되었고 경기 호조에 따른 超過需要가 늘어나 인플레이 압력이 크게 가중되었다.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968년 이후 公定割引率 引上, 所得稅附加稅 실시, 聯邦政府支出 삭감 등 緊縮財政, 金融政策을 실시하였으나 동여파는 1970년에 設備投資의 감소, 在庫投資의 격감으로 나타나 경기를 침체시켰으며 實質 GNP는 전년을 하회하였다. 그리하여 물가는 임금 상승 등 cost push 요인에 의하

여 계속 등귀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일어났다.

1970년초부터 이러한 景氣沈滯를 타개하기 위해 通貨供給의 확대, 財政支出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景氣回復, 雇傭增大 효과는 아주 적으며 물가만 계속 상승했다. 금년에 들어 와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率을 보이고 있어 1/4分期中에는 賃金 6.4%, 消費者物價 4.9%, 2/4分期中에는 賃金 6.3%, 消費者物價 4.4%가 각각 상승하여 惡性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은 4.5%의 安定線을 훨씬 넘어 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失業率과 物價上昇 그리고 전술한 國際收支 逆調深化 및 달러 가치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획기적인 政策轉換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달러 防衛措置에 대응하여 強勢國 通貨가平價切上되고 특히 일본의 圓貨가 평가 절상될 때 對日輸出入 依存도가 큰 우리 나라로서는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달러貨 防衛措置 중 우리 무역에 지대한 충격을 줄 輸入附加稅 10% 부과에 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輸入附加稅의 부과 대상은 農水產物原料 등 無稅品目과 石油, 설탕 등 輸入 quota 품목을 제외한 全輸入品이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참치, 生糸, 人蔘, 冷凍魚介類, 綿織物 등을 제외한 對美輸出品目 전부(對美總輸出의 90%)가 同附加稅賦課의 대상이 된다. 그 부과 방법은 現行關稅率(讓許關稅率)과 基本關稅率의 차이가 10% 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從價稅를 부과하고 그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同差異만큼의 從價稅를 부과하게 된다.

금년도 總輸出 目標額의 49.6% (6億 7千萬달러)를 점하고 있는 對美輸出 目標額 중 미달성분 약 2億 7千萬 달러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면

첫째, 닉슨 조치 이후 8월 31일 현재까지 실제 영향으로서 對美地域에서 거래 취소된 것이 20건에 6,765千 달러이고 buyer 요청으로 선적 보류된 것이 35건에 11,284千달러, 輸入附加稅 부과 문제로 교섭중인 것이 27건에 23,717千달러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對美地域의 L/C 來到狀況이 8월 16일 이후 격감되고 있는 실정

이다.

둘째, 同附加稅를 buyer가 부담할 경우 현지 販賣價格의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輸入需要가 감소될 것이며, 輸出業者가 부담할 경우 輸出採算性이 악화되어 輸出不可能 품목이 증가될 것이다. 양자의 경우 모두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이제 겨우 對美輸出市場의 개척 단계에 있고 수출 산업 구조가 脆弱하며,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우리 輸出產業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0% 附加稅 중 5% 이상을 우리 輸出業者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년도 對美輸出 目標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強勢通貨國인 일본이나 西歐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의 오판 活動이 低調하고 조건부 또는 圓貨나 마르크貨 표시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이미 예상되는 切上幅만큼 인상된 가격으로 오판을 발행하고 있어 cost push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輸出採算性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同附加稅 賦課措置는 잠정적으로 취해진 것이나 종래 세계 각국의 價例나 미국의 형편으로 보아 쉽게 폐지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強勢通貨國이平價切上을 早期斷行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國際收支 逆調가 개선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同措置는 장기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만약 동조치가 장기화한다면 각국은 輸出產業에 대한 租稅, 금융면에서의 優待市場의 轉換, 行政支援의 강화, 나아가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을 높여 새로운 보호 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섯째, 對美輸出品의 原資材導入을 53%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의 變動換率制採擇(사실상의 6%平價切上和 같음)으로 對美輸出品의 cost가 크게 상승하여 대미 수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제 換率引上 이후 미국의 輸入附加稅 부과(平均値: 7.8%) 및 일본의 圓貨平價切上(10%假定)에 따른 대미 수출의 증감액을 稼得率別로 추정해 보면 별표와 같다.

다음 表에서 輸出入 금융 기간은 3개월, 金利는 연 22%로 계산하였으며 이번에 조치된 輸出 金融期間 연장(180日까지)에 따른 利得(종래

輸入附加稅賦課及圓貨平價切上에 따른 對美輸出 增減額 (1971. 8~12)

(但 對美 輸出金融 期間延長 및 輸出弗當 融資比率 引上 勘案함)

(單位: 원)

區 分	外貨稼得率										備 考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換率引上에 따른 弗當 輸入收入增加額 (A)	42.70	38.43	34.16	29.89	25.62	21.35	17.08	12.81	8.54	4.27	1) 輸出金融期間을 135 日에서 180日로 延長 하는데에 따른 收入은 從來 135日을 超過 한 金融에 對해서는 22% 利率을 適用效 다고 보았음.
換率引上 및 間接支拂의 後退에 따른 負擔增加	0	0.28	0.56	0.84	1.12	1.39	1.67	1.95	2.23	2.51	
輸入金融金利 3% 引上分											
輸出用原資材 10% 마진積立負擔	0	0.27	0.53	0.79	1.07	1.33	1.59	1.86	2.13	2.39	
輸出間接費用外貨表 示料率의 元貨負擔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小 計(B)	1.50	2.50	2.59	3.03	4.69	4.22	4.76	5.31	5.86	6.40	
換率引上後 實質的 弗當 收入 增加額 (A) - (B)	41.20	36.38	31.57	26.76	21.93	17.13	12.32	7.50	2.68	-2.13	
圓貨 切上 (10%)에 의한 原資材 輸入價格上 昇負擔增加 (C)	0	1.96	3.92	5.88	7.84	9.80	11.76	13.72	15.68	17.64	
輸入稅賦課 (7.8%)에 의한 負擔 增加 (D)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輸出金融期間延長 (135日에서 180 日까지)에 따른 收入增加 (E)	5.90	5.31	4.72	4.13	3.54	2.95	2.36	1.77	1.18	0.59	計
差 減 額 (A - B - C - D + E)	18.10	10.73	3.37	-2.99	-11.37	-18.72	-26.08	-33.45	-40.82	-48.18	
輸 出 計 劃 額 (單位: 千弗)	5,358.0	1,321.0	2,107.0	19,689.0	-	110,849.0	45,428.0	32,787.0	19,740.0	823.0	268,512
輸 出 增 減 推 定 額 (")	204.4	33.2	18.7	-177.7	-	-8,748.2	-6,243.4	-7,706.3	-8,491.6	-823	-29,087.9
主 要 品 目	假令紙	壁紙	통조림	세탁기		假令洋食器	신발類	合成樹脂 製成衣類	合板 鐵製品		經編織物

135 일을 초과하여 180 일까지 22% 로 사용했다고 보았을 때), 弗當輸出金融比率引上을 260~295원 까지 고려했을 때 대미 수출의 최소 추정액은 2千9百萬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조치 중 外援規模의 10% 삭감은 중시되고 있지 않으나 이와 병행될 海外資本流出의 방지는 직접 및 合作投資, 低利開發借款의 도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圓貨平價切上과 그 영향

일본은 1965년 이래 對美貿易收支가 계속 赤字를 보였고 특히 금년 2/4분기 중 8億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貿易收支 赤字 중 6億 달러가 對日逆調이었으므로 너슨 조치의 주대상국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전후 多額의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1961~7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으며 1968년 이후 貿易收支에서 만성적 赤字基調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 수지의 불균형으로 對外準備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海外諸國으로부터 달러 措置 이후에 이미 圓貨切上의 요청을 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圓切上 회피 대책 8개 항목을 발표하여 외부 압력에 대처했으나 그 대부분이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실시되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할 만한 정도는 되지 못했다.

- ① 輸入의 自由化促進(9월 30일까지 수입 제한 품목을 40개로 축소)
- ② 特惠關稅의 실시(8월 1일부터)
- ③ 關稅率引下 촉진
- ④ 資本移動의 자유화(현재 1百萬 달러로 제한된 일본인의 對外投資 自由化)
- ⑤ 非關稅 장벽의 철폐
- ⑥ 외국과 經濟協力 증진
- ⑦ 輸出秩序 확립(輸出支援稅制 철폐)
- ⑧ 國內需要 촉진을 위한 財政金融政策의 機動的 운용 등.

너슨 措置가 발표된 후, 그 주요 대상이 일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EEC 諸國도 圓貨切上 壓力을 가하자 드디어 지난 8월 28일 變動換率

制(실질적으로 6% 정도의 平價切上)를 채택함으로써 각국간의 平價調整에 참가할 뜻을 밝혔다.

10개국 財相會談, 美·日間閣僚會議(EEC閣僚會議) 등을 거쳐 현재 IMF 총회에서 委員國間的 平價調整幅이 마무리 되고 있는 바 IMF는 미국 달러 3~5% 平價切下, 日本圓貨의 15.3%, 西獨 마르크貨의 12.3%, 캐나다 달러貨의 11.2% 및 英國 파운드貨의 7.2% 平價切上을 각각 제의했다고 하나 미국은 20~25%의 圓貨切上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8~10% 절상 용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國民經濟研究所가 전제하고 있는 12.5%(320圓 대 1달러)나, 14.3%(315圓 대 1달러)가 유력시되고 있다.

日本通產省 추계에 의하면 10%의 平價切上을 단행할 경우 연간 30億 달러의 輸出減少가 예상되며 여기에 미국의 輸入附加稅 賦課에 의한 대미 수출 감소 17億 달러와 기타 지역에 대한 7億 달러 수출 감소까지 합쳐 54億 달러의 輸出減少를 예측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도 兩措置로 인해 2.2% 떨어져 6.3%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런 조치에 의한 경기 회복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大藏省은 國債增發에 의한 公共事業費 추가, 財政投融資 추가와 一般豫算規模 擴大(20%), 所得稅減免 등으로 소비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면 日本圓貨의 평가 절상은 우리의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經濟原理上으로는 일본의 통화가 평가 절상되면 圓貨로 따진 우리 상품 값이 하락하여 대일 수출이 늘고 우리 통화로 따진 日本商品의 값이 등귀하여 대일 수입이 감소되어 對日貿易收支의 역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第三國에 대한 일본과의 경쟁에 유리해질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나라 수출 산업의 기반이 脆弱한 데다가 輸出用原資材, 施設材, 內需用原資材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그 값이 올라도 수입을 줄일 수가 없으며 對日輸出商品도 수요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일차 상품이어서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에 는 더구나

수입 quota 制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原資材 價格만 등귀시키고 이것이 cost push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圓貨切上에 따른 일본국 자체의 수출 감소로 자국내 상품이 국내 공급에 충당되어 수입이 감퇴할 것이며 불경기에 의한 對外購買力의 약화로 수입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우리의 對日 輸出展望은 밝지 못하다.

輸出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10% 圓貨 평가 절

상은 圓貨表示借款額 약 1億 8千萬 달러에 대한 870萬 달러의 元利金償還負擔 증가로 원가 고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대일 무역에 있어서는 수입의 비중이 크고 대미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의 비중이 큰 우리 輸出產業構造의 취약성 때문에 圓貨切上에 따라 비싼 원자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낮은 措置에 의거 10%의 輸入附加稅를 물면서 對美輸出을 해야 한다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近 着 外 國 圖 書

● THE INDIAN CONCRETE JOURNAL, May 1971

1. Editorial : Towards speedier and more economical construction
2. Letters to the Editor : A study of composite action in brick panel wall supported on reinforced concrete
3. Seminar on speed and economy in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defence services
4. Finishing and repairs to the concrete lining of the diversion tunnels in Beas dam project, Harbans Lal, H. K. Khosla and H. P. Aggarwal
5. Design of prestressed concrete beams subjected to combined bending and torsion, G. S. Pandit and A. K. Sharma
6. Mechanism of failure and microcracking of plain concrete under uniaxial tensile loading, K. T. Krishnaswamy
7. On contact pressure measurement with diaphragm type of pressure cells, E. C. Chandrasekharan, S. Boominathan and A. Varadarajan
8. The yield of mortar and concrete mixes, Surinder Singh and G. C. Sofat
9. Structural analysis of a typical conduit under high fill, Dalim K. Majumdar and Joseph F. Kalinoski

● THE INDIAN CONCRETE JOURNAL, June 1971

1. Editorial ; Fatigue and fracture of concrete—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2. Letters to the Editor : Ultimate torque carrying capacity of plain concrete rectangular beams
3. Design of the power intake structure of the Ramganga dam, O. P. Gupta
4. Dynamic earthquake analysis of a 20-storeyed office building in Bombay, Dr V. S. Kelker and P. G. Utagikar
5. A computer programme for stresses in clay under footings, C. V. Girija Vallabhan
6. Behaviour of block foundations subjected to ground vibrations, V. V. S. Rao and Sunder Singh
7. Unsymmetrical pile group, S. K. Kundoo

● THE INDIAN CONCRETE JOURNAL, July 1971

1. Editorial : Effect of temperature on concrete
2. Letters to the Editor : Some studies on the strength development of concrete : a theoretical approach
3. Concreting sand and how to make it : 1, N. S. Gill
4.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tensile stresses in the end zones of pre-tensioned beams, D. Krishnamurthy
5. A rapid method of assessing the cement requirement for the stabilisation of soils, L. R. Chadda
6. Build your new home in concrete
7. Modern concrete footbridges
8. The Laul method of design of cylindrical shells, V. C. Dimri